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 눈길

해양특성화·생태학교 등 특색교육 전남교육청 “지역 교육 희망 제시”

전남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점해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 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다를 교실 삼은 해양 특성화 학교,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학교, 해외 영화제 출품 준비하는 영화학교 등은 지역을 살리고 교육의 희망을 제시하는 모델로 주목된다.

2024년 선정돼 운영 중인 특성화 모델학교는 ▲목포서산초(바다랑랑학교) ▲화양초(학생작가학교) ▲서삼초(TH+ 건강한 아토피 안심학교) ▲중동초(산수유골 씨네스쿨) ▲삼기초(마을을 품은 귀있는 영화학교) ▲덕진초(월출 요리조리학교) ▲간문초(영어뮤지컬학교) ▲별량초(지구별 생태학교) ▲고흥대서중(글로벌 학교) ▲나주부황중(국악예술감성학교) 등 10개다.

올해는 청풍초(할리우드 영화학교), 군남초(군형성장학교), 팔금초(물너울학교) 등 3곳이 추가 지정됐다.

특히 목포서산초는 2023년 전교생 12명으로 통폐합 위기에 놓였지만, 특성화 사업 선정 이후 반전을 이뤘다. 목포해양대학교, 목포해양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안전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통학 지원도 강화한 결과 2024년에는 32명, 2025년에는 50명까지 학생 수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구례 중동초는 연극 수업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특성화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농산어촌 유학생 33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글로벌 공동체로 발전하며, 농산어촌



‘바다랑(浪)학교’ 목포서산초 학생들이 해양안전교육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유학사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장성 서삼초는 아토피 등 환경 질환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학교는 친환경 교실, 사계절 생태놀이, 치유형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하며 건강한 삶을 중시해 둔 교육을 실천 중이다. 전교생 38명에서 47명으로 늘었고, ‘건강한 학교’라는 명성이 학부모들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순 청풍초는 독서와 인문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지역 영화감독 및 예술강사들과 함께 영화를 완성하는 ‘학생주도 영화학교’다. 올해는 특히 자체 제작한 영화를 해외 영화제에 출품한다는 장기 목표 아래, 학생들과 함께 도전을 잇는다.

이 외에도 고흥대서중은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현지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국제 교류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을 키

운다. 영광 군남초는 학생들의 근지구력, 스트레스 지수, 영양 상태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맞춤형 성장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특색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지역의 학생 수 감소세가 완만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전남교육청은 교육과정 특성화, 통학 지원, 교육 활동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심치승 전남도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작은학교는 함께 배울 때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교육공동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특성화 사업을 이끄는 교직원들의 열정은 반드시 학부모들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작은학교의 강점을 키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전남형 글로벌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지역 상생의 꽃’ 피우다

5월 8~11일 ‘장미주간’ ... 포토존·추억의 장미다방 등 풍성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오는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조선대 장미원에서 ‘2025 장미주간’을 운영한다.

조선대 장미원은 매년 5월 수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의 명소다. 다양한 색의 장미가 지친 일상을 잊게 하고, 행복을 전하며 사랑받고 있다. 이번 장미주간은 캠퍼스를 더욱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Rise with Rose(조선대, 장미와 함께 떠오르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장미가 지닌 아름다움과 열정을 통해 조선대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장미의 향기가 캠퍼스를 넘어 지역으로 퍼져 나가듯, 조선대는 교육과 연구, 지역 상생의 꽃을 피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갈 계획이다.

조선대 장미원은 약 8천㎡ 규모로 프린세스 드 모나코, 자넷 드 프랑스, 루스티카나, 잉카 등 231종, 약 19,000주의 전 세계 장미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01년 5월 의과대학 동문들이 모교와 후배들을 향한 애정으로 조성한 것이 시작이었다.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에는 1946년 조선대학교를 설립한 7만 2천여 설립동지회원들의

송고한 뜻과 함께, 호남 명문 사학으로 성장하도록 성원해준 지역민에 대한 보은의 뜻이 담겨 있다.

장미주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낮에는 다채로운 장미가 자태를 뽐내고 밤에는 조명과 음악, 향기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붉은 장미의 열정, 분홍의 우아함, 노랑의 생동감이 어우러진 자연의 장관이 캠퍼스를 가득 채운다.

올해 행사는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특별한 문화 체험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교내·외 다양한 기관의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 포토존, SNS 인증 이벤트, 돌림판 게임, ‘추억의 장미다방’ 사연·신청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조선대 박물관과 연계한 전시 관람도 함께 진행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학생들을 위한 체험 부스 및 쉼터, 먹거리존도 운영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가 될 예정이다. 또한, ‘Rising Rose Garden’이라는 이름으로 장미원 환경 개선을 위한 모금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조선대는 장미주간 이후에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장미원을 개방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장미원에서 열린 ‘2024 장미주간’ 행사. <조선대 제공>

전남대-다쏘시스템코리아, 미래차 실무인재 양성 MOU

설계-제조 연계형 실습 환경 구축 산업현장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 디지털 기반 실무교육 강화 등 협력

전남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한중훈) 기계공학부(학부장 고성영)는 최근 다쏘시스템코리아(대표이사 정운성)와 미래차 산업을 이끌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AI 비추얼 트윈 기업 다쏘시스템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3DEXPERIENCE 플랫폼 중심으로 세계 유수의 제조 기업에 디지털 설계 및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 개발 및 생산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대학교와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미래차 인력양성 부트캠프’ 등 산업 수요 기반 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대가 설계한 교육 콘텐츠와 실습 프로그램에 대해 다쏘시스템이 자사의 플랫폼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문적 자문과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쏘시스템은 현대자동차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최신 기술과 실무 역량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앞으로 ▲설계-제조 연계형 실습 환경 구축 ▲산업현장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 ▲디지털 기반 실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산학협력 중심의 미래차 교육 혁신 모델을 공동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훈 학장은 “이번 협약은 공과대학의 디지털 기



전남대 공과대학 기계공학부는 최근 다쏘시스템코리아(대표이사 정운성)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대 제공>

반 교육 혁신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첨단 플랫폼과 산업현장을 연결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미래차 분야의 실무형 핵심 인재 양성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기반 공학 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차 분야 실무인재 양성의 거점 대학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방사선학과, ‘거점형특화프로그램’ 인기

취업역량 강화 실무인재양성

동신대학교가 최근 방사선학과(학과장 송중남) 재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실무인재양성과정 1기를 개최해 큰 인기를 끌었다.

방사선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공역량 강화 및 지역 청년층의 실무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재학생들은 맞춤형 취업상담을 받고, ‘KBLS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강하며 참가자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KB인재니움 사천연수원

을 방문해 입사 서류 및 면접 특강을 듣고 개별 컨설팅을 받으며, 실질적인 직무역량과 취업준비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동신대 송중남 방사선학과장은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체득하고, 자격증도 취득하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체계적인 취업역량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